

71개 대학과 함께하는 대학 입학정보 총망라

18~19일 원광대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1:1 맞춤형 상담 부스· 29개 대학 입시설명회 등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8~19일 이틀간 원광대학교에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71개 대학이 참여해 △1:1 맞춤형 상담 부스 운영 △29개 대학의 입시설명회 △진학특강 등 대입 전형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틀간 3개 회차로 구분

해 실시하며, 개막식과 진학특강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박람회 기간 중 4차례 마련되는 진학특강은 △면접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의약학계열 등 전형별·계열별 맞춤형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1회차는 18일 오후 1~6시, 2회차는 19일 오전 9시 30분~오후 12시 30분, 3회차는 오후 2~5시에 운영되며, 사전

예약 신청과 회차별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지만 박람회 당일 적정 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북 진로진학 누리집 (<https://www.jbe.go.kr/jirro/>)에 접속해 신청한 뒤 접수증을 출력, 행사장 입장시 제출하면 된다. 최은이 증등교육과장은 “다양한 대학의 입학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진학상담과 설명회를 통해 도내 수험생들의 대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026년도 영어중점학교’ 공모

초·중학교 20곳 내외 선정… 교과형·몰입형으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도 영어중점학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영어중점학교는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춰 ‘영어교과형’과 ‘영어몰입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먼저 ‘영어교과형(English-focused Type)’은 영어 학력 및 문해력 신장을 목표로 정규 교과수업 외에 AI 활용 수업, 방과후 영어 수업, 동아리, 영어 캠프, 영어 프로젝트 활동, 영어학습 포인트 제도, 영어전용구역, 영어 사용의 날, 실용영어 인증제, 문화교류 행사 등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이어 ‘영어몰입형(English Immersion Type)’은 영어 관련 특색 프로그램 운영과 수학·과학 등 일부 교과를 영어

로 가르치는 형태로 원어민보조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협력 수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영어중점학교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5일까지 공모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jbe.go.kr/gongmo>)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학교는 12월 15일 발표된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영어중점학교는 단순히 영어를 잘하게 하는 것을 넘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과 문화적 감수성을 길러주는 영어 공교육 모델”이라며 “영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 중심의 영어교육을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글로벌대학 준비 과정 공유

전주대, 본지정 추진 위한 구성원 공청회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0일 교내 JJ아트홀에서 글로벌대학 본지정 추진을 위한 구성원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4일 열린 1차 공청회에 이어 열린 2차 공청회로, 글로벌대학 준비 과정과 실행계획서 작성 과정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글로벌대학 사업의 핵심 공간인 K-Life STARDium에 대한 설명과 진행상황, 기존 도서관 재배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글로벌대학에 도전하는 전주대학교는 호원대학교는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K-Culture Gateway, K-Life

Campus 실현’을 비전으로 △모두가 찾아오는 캠퍼스 △실무가 완성되는 캠퍼스 △성과가 지역으로 순환되는 캠퍼스 등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서 작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글로벌대학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대학이 지역을 기반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본지정은 대학 구성원들의 단단한 합의와 연대 속에서 완성될 것이며, 대학이 지역과 상생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재학생 맞춤형 경력개발 경진대회’ 시상식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부는 10일 문화관 5층 화상회의실에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경력개발로드맵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학생들의 진로 설정 능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총 50명의 학생이 참여해 직업포트폴리오를 제출했다. 심사 결과 정선우(간호학과 2년) 학생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또한 이영훈(심리학과 1년) 학생 외 1명이 우수상을, 하현지(스포츠지도학과 2년) 학생 외 6명이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정선우 학생은 “진로에 대해 막연했던 생각을 체계적으

로 정리하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더 발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재광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진로 고민이 많은 시기에 학생들이 자신만의 경로를 정리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의 진로 여정을 밀착 지원하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김은주 교수, 전국대학
작업치료교수협의회 회장 당선



전주대학교 김은주 교수(작업치료학과)가 최근 열린 ‘2025년 전국대학작업치료교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 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정기총회에는 전국 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들이 참석해 김은주 교수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제12대 회장에 당선된 김 교수는 “급변하는 보건 의료 환경 속에서 작업치료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고, 전국 작업치료학과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학문적·임상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며 “국제 학술 교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2028년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작업치료학술대회(APOTC)에도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국내 학계와 임상 현장의 준비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국대학작업치료교수협의회는 작업치료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강화, 작업치료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 대학의 작업치료학과 교수들이 힘을 모은 협의체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성심여고 학생 대상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 진행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9일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진학체험은 대학 소개, 입시 설명, 질의응답과 함께 캠퍼스 투어, VR/AR 체험 등 전주교육대학교만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대학 진학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입시 설명과 VR/AR 체험 활동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대학에 관한 궁금증이 질의응답을 통해 해소됐고, 직접 입학사정관 선생님의 입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병춘 총장은 “학생들이 직접 대학을 경험해보는 기회를 통해 진로를 깊이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생들에게 교육대학의 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10일 이틀간 베트남 현지에서 2026학년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1차 선발 심사를 실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베트남 학생 18명, 내년 3월 전북 고교 입학

전북교육청, 현지서 직업계고 유학생 1차 선발 심사… 사전 교육 후 입학 예정

베트남 학생 18명이 내년 3월 도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10일 이틀간 베트남 현지에서 2026학년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1차 선발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도학교 교장 등 10여명이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교육개발센터(CIED)를 방문, 서류 및 면접 심사로 진행됐다. 앞서 CIED는 지난 6월 30일까지 유학생 모집 및 접수를 완료, 총 48

명의 지원자 중 25명을 추천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해 18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입학 전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 및 한국 생활문화 교육에 참여한 뒤, 오는 11월 중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일정에 맞춰 입학을 확정하게 된다. 입학 대상 학교로는 도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도학교인 △글로벌혁신고 △제과제빵고 △글로벌의

식조리고 △해어미용고 △전주공업고 기계과·전기과·자동차과 △줄포자자동차공업고 미래자동차과 등이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은 전북교육청과 베트남 교육훈련부 간의 실질적인 교육 협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직업계고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양국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센터장 한재익)가 10일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 인근에서, 구조해 치료를 마친 올빼미를 자연으로 방생했다.

“올빼미야! 힘차게 날아라”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올빼미 자연 방생
지난 4월 전주서 시민 제보로 구조해 치료 마쳐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센터장 한재익)가 10일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 인근에서 구조해 치료를 마친 올빼미를 자연으로 방생했다. 이에 따르면 이 행사는 환경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마련, 야생동물 보호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함께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날 방생된 올빼미는 지난 4월 20일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인근 도로변에서 아미를 잃은 채 시민의 제보로 구조됐다. 구조 당시 어린 개체로 탈진 상태였으며,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등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센터는 올빼미를 즉시 이송해 진

료와 혈액 검사, 치료는 물론 비행 훈련을 포함한 체계적인 재활 과정을 거쳤다. 회복을 마친 올빼미는 이날 방생과 함께 환한 날갯짓으로 자연으로 돌아갔다. 한재익 센터장은 “이번 방생은 단순한 구조와 치료를 넘어, 생태 복원이란 큰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야생동물이 건강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개소한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을 포함해 매년 1,000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선도사업 창업경진대회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은 지난 8일 2025년 전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선도사업 초기사업비 지원을 위한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서 예비 창업가들은 △전주 한옥마을 내 문화관광 팝업 공간, △전주의 관광지를 테마로 한 체험 기반 게임, △전주의 관광지를 여

행하며 추억을 남기는 사진 스냅 등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한 예비 창업가들은 초기사업비 지원을 통해 앞으로의 사업 운영에 대한 의지를 높였다. 추후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당뇨 학생 건강 증진 돕는다
전북교육청, 12일 학부모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2일 전북대 간호대학에서 ‘2025년 학생건강증진교육센터 학부모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가정에서의 당뇨병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해 당뇨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전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의 ‘소아당뇨병의 이해’ 강의와 김민희 간호사의 ‘학교에서의 상황별 혈당관리 방법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학부모들이 함께 소통·공감하면서 질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의 당뇨 관리 실천 방안을 공유한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학부모 연수를 통해 가정 내에서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바른 당뇨병 관리로 행복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술내고, 학교운영위원
탄소중립 중점학교 이해 연수

전주술내고등학교는 10일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 이해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5학년도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 선정과 2025년도 학교운영위원회 ESG 연수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또한 연수 중에 청렴 소식지 ‘톡톡(Talk Talk)한 청렴생활’ 속 함께 만드는 청렴 코너에도 참여함으로써 청렴 관련 소식을 공유했다. 연수에 참석한 운영위원장은 “학생들이 교육과정 속 탄소중립 실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탄소중립 실험·실습,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배우고 캠페인, 텃밭조성 등 실천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임병민 교장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중점 실천학교 활동을 활성화하고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종이 문서 감축 등 태블릿 PC를 활용한 청렴한 문화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